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

- 안전보건관리체계, 고위험요인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분야 사례 중심
-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 겪는 기업들에게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효과 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격차 해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효성이 검증된 100개 우수사례를 엄선한 것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원·하청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 사업에는 매년 평균 220개 모기업과 3,20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집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고위험 요인별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사례는 추진 배경, 주요 활동, 기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 구체적인 상생 모델이 다수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는 협력사 적격성평가를 강화하고 결과를 외주계약과 연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화했다. 그 결과 협력사 평균 평가점수가 85.9점('23년)에서 89.16점('24년)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안전관리 취약 협력사를 사전에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대표적 사례다.

고위험 설비·공정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사례도 눈에 띈다.

LG전자(주) 창원1공장은 협력업체 25개사를 대상으로 Safety PLC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3단계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221대 PLC와 821대 도어 인터록 설비에 다층 보안을 적용해 임의 해지 시도를 100%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기계적 위험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며 법적 준수율과 설비 신뢰성을 동시에 높였다.

삼성SDI(주) 울산사업장은 AI 기반 사람 인식 자동정지 시스템을 지게차 42대에 적용해, 사람을 감지하면 0.1초 내 자동 정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30~40%에 달하던 오작동률을 2% 이하로 낮추고 충돌·끼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례도 포함됐다.

(주)현대글로비스는 차량 운반트럭 운전원을 위한 경량 맞춤형 안전모를 개발해 1,200명에게 무상 지급했으며, 안전모 착용률을 기존 10% 미만에서 63%까지 끌어올렸다.

아모레퍼시픽(주) 뷰티파크는 17개 협력업체와 함께 전기판넬 스마트 자동확산소화기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처럼 사례집은 제도 개선, 스마트 기술 도입,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 혁신의 구체적 성과를 담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상생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사 안전 활동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중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안전은 단기적인 손실 예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집이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자율적인 안전보건 역량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사례집은 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을 통해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표지

담당 부서	산업안전실 안전사업부	책임자	부장	정희재	(052-703-0630)
		담당자	차장	이나래	(052-703-0632)



붙임

<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



끼임



14 Safety PLC 임의조작 3단계 차단

LG전자(주) 창원1공장

LG전자(주) 창원1공장은 생산 물량 압박 속에서 협력업체가 Safety PLC 안전기능을 임의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중대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장치 유지 의무와 ISO 13849 기준 준수를 위해 포트락·비밀번호·실시간 모니터링을 결합한 3단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25개 협력업체 설비 전반에 적용해 임의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추진 활동

- 포트락·비밀번호·실시간 모니터링을 결합한 3단계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Safety PLC 임의 조작 원천 차단
- 물리적·전자적·관리적 보안 체계 전면 적용

협력업체

25개

PLC

221대

도어 인터록
시스템

821대



Port Lock 교육 동영상



Port Lock 설치